



# “굿바이” 나지완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KIA 우승 이끈 끝내기 홈런 주인공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 ‘원클럽맨’으로 15년 선수 생활 마감 221홈런 타이거즈 최다 ... “팬들에 받은 사랑 깊이 새기며 살겠다”



2009년 10월 24일 밤 광주 전역에 환호성이 터졌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의 방망이를 떠난 공이 외야 좌측 관중석 상단으로 향하는 순간, 광주는 승리의 함성으로 들끓었다. KBO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한국시리즈 끝내기를 연출했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주인공 나지완이 그라운드에서 떠난다. 타이거즈 ‘원클럽맨’ 나지완(37)이 1일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나지완은 이날 구단과 면담을 하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나지완은 “무력무력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현역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며 은퇴 뜻을 전했다. 또 “선수로 뛰는 15년 동안 팬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고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 부상과 부진으로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최고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나지완은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거포’ 중 한 명으로 고향팀에서 역사적인 이름이 됐다. 수유초-신일중-신일고-단국대 등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나지완의 고향은 광주다. 지완이라는 이름도 부친이 무등산 ‘지왕봉’에서 따왔다고 한다. 단국대를 졸업하고 2008년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나지완은 개막전에서 4번 타자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와 함께 타이거즈

역사상 첫 신인 개막전 4번 타자라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프로 2년 차였던 2009년의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12년 만의 타이거즈 V10을 장식한 나지완은 2017년 V11의 순간에서도 빛났다. 그는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승부에 쐬기를 받는 3점 홈런을 날리면서 ‘한국시리즈 영웅’으로 기억된다. 나지완은 KBO 통산 15시즌 동안 1472경기에 출전해 1265안타(221홈런) 862타점 668득점 OPS 0.857를 기록했다. 특히 나지완의 221홈런은 ‘레전드’ 김성한(207개)을 뛰어넘는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기록이다. 타이거즈 역사를 빛낸 프랜차이즈 스타의 퇴장은 팬들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 요구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31경기 출전에 그쳤다. 팀의 임시 주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았던 나지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이 마비돼 시즌을 중도에 마무리했다. 올 시즌에는 프로 15년 차에 처음 2군 스프링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이를 악물었지만 나지완에게 ‘마지막 타석’은 없었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은 올렸지만 선발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4월 3일 LG와의 경기에서 2-3으로 뒤진 8회말 1사 1-2루에서 대타로 방망이를 들었다. 관중석에서 나지완을 반기는 환호성이 쏟아졌

만 타석에는 서지 못했다. LG가 투수를 함덕주에서 정우영으로 교체하자 KIA도 다시 대타를 고종욱으로 바꿨다. 고종욱을 응원하면서 덕아웃으로 들어가던 나지완의 모습이 현역 마지막 장면이 됐다. 나지완은 4월 5일 이외리가 등록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후 나지완은 퓨처스 리그에서 41경기를 소화했지만 끝내 콜업을 받지 못했다. “아들에게 그라운드에서 뛰는 아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나지완은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 여행을 다녀온 나지완은 은퇴식과 진료에 대해서는 구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KIA는 팀을 상징하는 선수이자 KBO리그에도 발자취를 남긴 선수인 만큼 성대한 은퇴식을 준비할 방침이다. 나지완은 “KIA라는 한 팀에서만, 선수로서만 살아왔다. 당분간 차분하게 낚은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고 야구를 접하고 싶다”면서도 “KIA는 나를 잊게 한 고마운 팀이고, 팀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후배들과 팀을 위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종국 감독은 “현역시절 룸메이트도 하고 그랬다. 퓨처스 리그에 있는 동안 고민은 물론 생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한 번 콜업이라도 했다면 땀을 토했던 그 마음 이해는 한다.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 같다. 그걸 못해서 미안하고 착잡하다”며 “2009년 끝내기 홈런도 있고, 2017년 대타로 나와 홈런도 친 적이 있고 팀에 공헌했다. 팀 우승을 시킨 홈런들이 기억에 남는다. 팀에 15년 동안 공헌을 많이 했고,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팀에 대한 헌신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5경기 ‘골 침묵’ ... 손흥민에 무슨 일이?

EPL 웨스트햄전도 무득점 윙백 페리시치와 호흡 안 맞고 콘테 새 전술 공격 관여 줄어 첫 골 심리적 부담 떨어내야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해를 보낸 손흥민(30·토트넘)이 새로운 시즌 초반 예상되지 않은 ‘골 침묵’에 빠져 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2-2023 EPL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5경기째 무득점이다. 사우샘프턴과의 1라운드(4-1 승)에서 결승 골 도움을 작성한 게 이번 시즌 유일한 공격 포인트다. 지난 시즌 총 23골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으나 손흥민의 초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의 리그 개막 ‘5경기 골 침묵’은 근래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2018-2019시즌에 리그 10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골을 넣은 게 최근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팀은 개막 5경기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으나 손흥민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른 뒤 더 잘해야 한다는 손흥민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플레이 모습에서도 느껴진다. 상대 수비가 손흥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더 대비하고



손흥민

심하게 견제하는 것도 아직 골이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한 토트넘의 상황과 전술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즌 합류해 손흥민과 같은 측면에서 서는 윙백 이반 페리시치의 호흡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박문성 해설위원은 “손흥민과 필연적인 한 묶음인 페리시치는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침투도 하는 스타일이라 손흥민과 겹친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다”며 “동선과 역할 분배가 매끄럽지 못해 영기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또 “토틀넘이 해리 케인을 위주로 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원에서 불이 오는 게 약해졌다. 오늘은 로드리고 벤투쿠르가 뇌진탕 증세로 못 나오면서 더욱 불이 오지 않았다”며 “토틀넘이 잘하던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데, 상대가 손흥민과 케인을 워낙 잘 아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BBC에 실린 한 칼럼에선 “손흥민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의해 창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그가 깊은 위치로 내려가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 공격에 관여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대길 위원은 “토틀넘의 스쿼드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 강해진 만큼 손흥민이 득점할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본다”며 “부상이 있거나 경기 출전을 못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심리적 부담을 떨칠 한 골만 나온다면 페이스를 금방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흥민이 지난 3경기 선발로 나섰다 교체로 빠지는 동안 주로 대신 투입됐던 이적생 히사롤리송이 준수한 활약을 보이면서 현자 매체 등에서 선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웨스트햄전엔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콘테 감독의 신뢰가 재확인됐다. 토트넘은 3일 풀럼과 EPL 경기를, 8일엔 마르세유(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첫 경기를 차례로 치른다. 11일엔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 대결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 맨시티 홀란 5경기 9골 ‘대폭발’

2경기 연속 헤트트릭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2·맨체스터 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하자마자 무서운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다. 홀란은 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022-2023 EPL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2분 선제 결승 골을 시작으로 전반 22분, 전반 38분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 라운드에서 크리스티안 팔리스를 상대로 3골

을 폭발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헤트트릭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하던 홀란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와 5년 계약을 맺고 영국으로 무대를 옮겼다. 현지 매체에서 전해진 이적료는 5100만 파운드(약 797억 원), 에이전트 수수료와 계약 보너스 등을 더하면 8천550만 파운드다. 많은 빅 클럽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아버지인 알프 잉게 홀란이 2000~2003년 수비수로 활약했던 맨시티를 택한 홀란은 새로운 리그 적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반부터 펄펄 날고 있다. /연합뉴스

개막전부터 웨스트햄을 상대로 2골을 넣었고, 3라운드 뉴캐슬전에서 1골을 보낸 뒤 4~5라운드에서 연속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EPL 홈페이지는 홀란의 9골이 리그 개막 5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히오 아그에로와 미키 켄의 8골을 앞지른 ‘EPL 데뷔 5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이기도 하다. 홀란은 득점 순위에서도 단연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 2위 알렉산드르 미르노비치(풀럼·5골)와는 4골 차다. 유일하게 골을 넣지 못한 2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선 도움 하나를 기록, 리그 개막 이후 전 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초반부터 EPL을 평정할 기세다. 이날 홀란은 첫 골을 원발, 두 번째 골은 오른발, 헤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은 헤더로 터뜨렸다. /연합뉴스



홀란